

■ 그림 여행



감사드리는 가난한 사람들
(The Thankful Poor c. 1894)

헨리 오사와 태너
(Henry Ossawa Tanner 1859 - 1937)
(캔버스에 유채 2' 11 1/2" x 3'8 1/4"
윌리엄 H. 앤드 카밀 크로스비 개인소장)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감사의 계절. 그러나 마냥 즐겁고 감사하지만은 않다. 세상 돌아가는 상황은 참 걱정스럽고, 온갖 걱정이 쌓여있는데, 그 위에 한 해 동안 무엇을 했나 하는 자괴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섞여 마음이 편치 않다.

인간은 잘 먹고 잘 살아야 감사하는 것일까? 헨리 오사와 태너가 그린 이 그림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어둡한 방 한구석에 마련된 식탁. 노인과 소년이 마주앉아 식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다. 이

그림을 보며 우리는 그림 속의 두 사람이 흑인이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 '흑인'이라는 존재의 사실은 여러 가지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의미 속에는 차별, 빈곤, 핍박, 고통, 슬픔 등의 개념들이 자리잡고 있다.

결코 넉넉하지 않은 식탁에 마주앉은 두 사람은 두 손을 맞잡고, 또는 이마에 작은 손을 올리고 눈을 감은 채 깊은 기도의 순간 속에 포착되었다. 무채색으로 가라앉은 실내, 한쪽으로부터 흐르는 붓질의 물결, 그리고 한 방향으로부터 들어오며 방을 밝히는 빛이 그림의 분위기를 정돈하면서 관객으로 하여금이 겸손한 기도의 정경에 집중하게 한다.

먹을 것이 차고 넘치지 않아도, 삶이 풍요롭거나 편안하지 않아도, 앞날이 밝아 보이지 않아도, 할아버지와 손자인 듯한 이 두 사람은 고요히 앉아 모든 것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 두 사람을 바라보는 관객의 시각과 마음도 그림 속에 몰입한다.

헨리 오사와 태너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미국 최초의 흑인 화가였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받는 인종적 차별을 견디다 못해 보다 자유롭고 수용적인 프랑스에서 일생을 보냈다. 그는 사실주의 화가로서 평생 흑인의 삶에 대한 고찰을 멈추지 않았으며, 분노와 원망 대신 인내와 감사의 겸허한 시선으로 자신의 예술을 승화시켰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마음속에 맺혀 있는 그 질문이 이 그림을 보며 한 가지 가능한 답을 얻는 듯하다.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김동백》

명화에 얽힌 사연



■ 만종(The Angelus)

장 프랑수아 밀레(1814~1875)의 '만종' 만큼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그림은 흔치 않다.

작품이 만들어진 1860년 당시 밀레는 물감을 살 돈조차 없는 가난 한 화가에 불과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화상 아르투르 스테반스가 그림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1,000프랑을 지원한다. 이 1,000프랑으로 탄생한 그림이 바로 <만종>이다. 이렇게 탄생한 <만종>은 100년 만에 80만 프랑 값어치를 얻었고, 지금은 프랑스의 자존심이자 전 세계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보물이 됐다.



그런데 부부가 감자 바구니를 가운데 두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은 노동의 신성함과 경건함, 평화로움 등으로 설명돼 왔지만, 사실 슬픔과 연민의 정이 느껴지는 사연이 숨어 있다.

감자가 담겨있는 바구니는 원래 부부의 배고픔으로 죽은 아기의 시체가 들어있었다. 그림 속의 아기가 사라진 이유는 이렇다.

미술대회에 출품하기 전 먼저 이 그림을 본 친구의 만류로 밀레는 감자를 덧칠해 그렸고, '만종'은 농촌의 평화로움을 담고있는 그림으로 유명해 졌다.

그러나 화가 살바도르 달리는 이 그림에서 '슬픔'과 '불안'을 느꼈고,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그에 관한 책을 쓰기까지 했다.이같은 진실은 루브르미술관이 자외선 투사작업을 통해 감자 자루가 초벌그림에서는 어린아이의 관이었음을 입증하면서 밝혀졌다.

www.daebaksigns.com



사장님,
칭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배너, 메뉴보드, 광고, 전단, 포스터, 명함, 박스간판, 채널레터, 폼레터, 창문사인, 전시사인, 판촉물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

사장님을 위한 수만 가지 대박 솔루션이 준비되어있습니다
이제, 한국 최고 광고회사와 디자인 교수 출신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대박사인에서 직접 제작했습니다.

사장님의
대박을 위한
전품목

대박 SALE

쉬! 가격은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하세요.
대박입니다!

대박사인

T. 323.641.7907
1313 Fedora St., LA CA 90006